

# 과학자가 그것도 몰라?

과학과 인문학 잇는 '징검다리 학자' 자부심

글 송상용 | 한림대 교수

인문학계에서 살면서 그 복잡함에 놀랄 때가 많다. 과학자들은 상당히 단순하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나는 지금 인문학에 몸담고 있지만 기질은 과학자에 더 가깝다.

**지** 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의 일이다. 화학 숙제를 하던 딸이 화학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었다. 모른다고 했더니 '화학을 했다면서 그것도 몰라요' 하는 것이었다. 지금도 가끔 이러한 유의 질문 때문에 난처해질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을 못한다고 하면 '아니 과학자가' 하는 반응이 당장 되 돌아온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과학자가 못 됐으니 당연하다'고 대답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과학자를 꿈꾸었던 터라 대학에 진학할 때 고민하지 않고 이과를 택했다. 하지만 3학년을 마쳤을 때 심각한 회의에 빠졌다. 과학이 싫은 것은 아

니었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고민 끝에 전과는 하지 않고 대학을 마치고로 했다. 4년을 헛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과학과 인문학을 잇는 중간영역을 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졸업을 한 뒤에 화학과 강의를 청강하다가 이듬해 철학과에 학사 편입했다. 인문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철학을 공부한 다음 진로를 결정하자는 생각이었다. 철학과 학생으로서 첫번째 한 일은 대한화학회에 가입한 것이다. 종신회원 번호 37번을 부여받았다.

철학 공부는 나를 만족시킬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망설임 끝에 대학원에 진학했고 철학을 강의하는 강사의 길로 나섰다. 그리고 얼마 뒤 미국에 가서 과학사와 과학 철학을 공부했다. 귀국해서 다시 강단에 서면서 나는 주로 자연과학개론과 과학사를 강의했다. 내 강의의 내용은 인문학이었지만 과목 자체는 자연계로 분류되었다.

## '과학기술은 무엇인가'에 모든 관심 집중

자연히 이공계와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학회활동은 과학, 철학, 역사학을 넘나들었고 글도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썼다. 하지만 어느 분야에서든 나를 정식 멤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문학 쪽에서는 과학자로 통했고 과학계에서는 인문학자로 보았다. 말하자면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주변인이 된 것이다.

요즘 나는 과학기술학을 전공으로 내세운다. 과학기술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과학기술에 관해 연구한다는 뜻이다. 과학기술학은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을 아우르며 이미 한 세대 전에 당당한 독립학문으로 자리를 굳혔다. 얼핏 보기에 이 분야 저 분야를 어지럽게 건드리는 것 같으나 나의 관심은 과학기술이 무엇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과학기술의 문제는 자체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인문·사회과학과의 협조가 긴요하다는 점에서 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학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인문학계에서 살면서 그 복잡함에 놀랄 때가 많다. 과학자들은 상당히 단순하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나는 지금 인문학에 몸담고 있지만 기질은 과학자에 더 가깝다. 과학도로 출발했으니 어쩔 수 없는가보다. 

